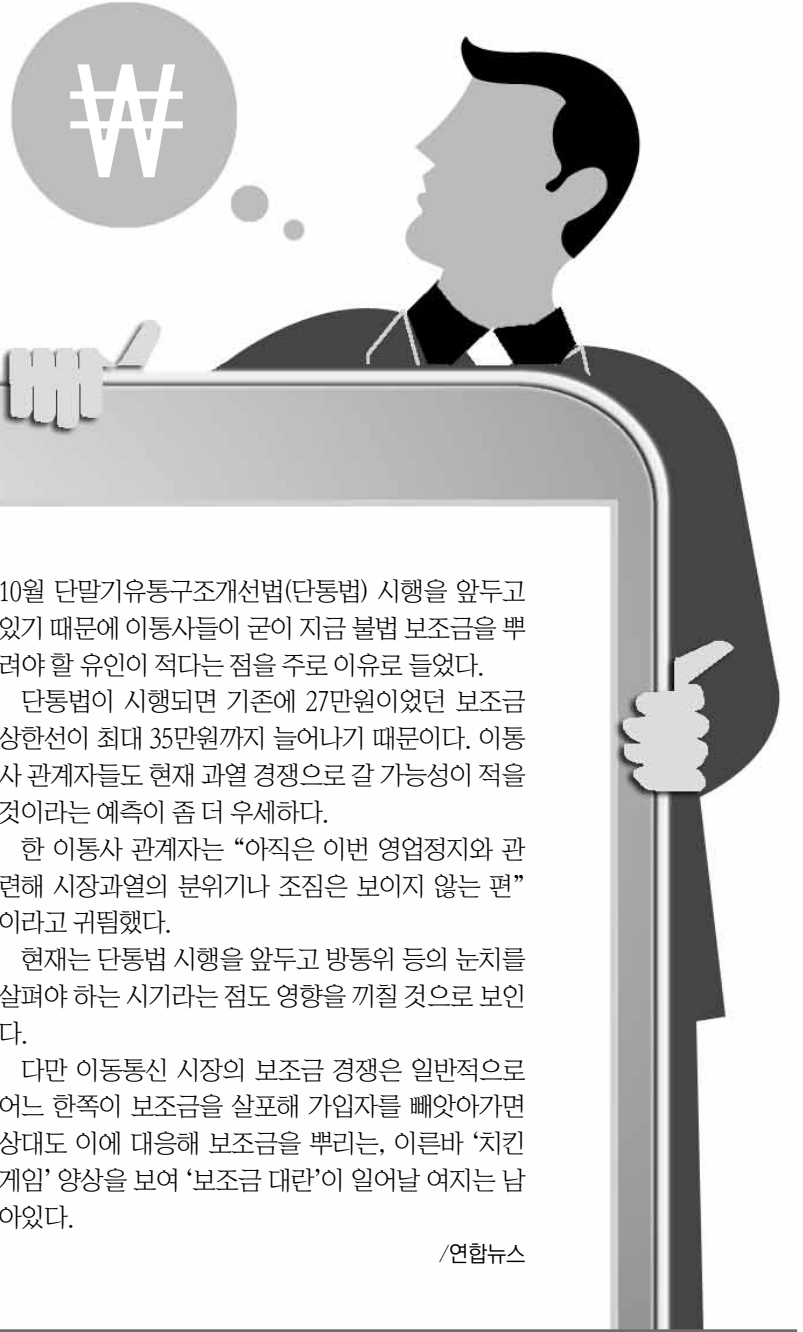


“보조금 오를까”... 소비자 눈치작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살포로 인한 이동통신사 순차 영업정지를 명령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 오히려 불법 보조금 살포가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이 다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과 스마트폰 소비자들은 27일부터 시작한 LG유플러스(U+)의 영업정지 기간에 SK텔레콤과 KT 등 다른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 경쟁 제재, LGU+ 오늘부터 1주일간 영업정지

삼성·애플 등 신상품 출시 앞둔 9월 과열 가능성 의견 분분

“단통법 시행 앞두고 영향 적을 것” 의견도...구매자들 촉각

과거에도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가입자 모집의 적기로 보고 높은 수준의 보조금 정책을 편 이동통신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9~10월 중에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6의 출시가 사실상 예정돼 있다는 점도 이런 예상에 힘을 실어준다. 이들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갤럭시 노트3와 아이폰5s의 재고를 얼른 털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서 이동통신사들의 설명으로는 팬데 제품의 재고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등이 실려 다시 시장과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예상 외로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반대 견해의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폰 구매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이번 영업정지에는 기대를 걸지 않겠다”, “부모님 스마트폰을 바꿔드려야 하는데 타 이목을 잡기 힘들다” 등의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고 있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니 보조금이 많이 늘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게시물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들은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굳이 지금 불법 보조금을 뿌려야 할 유인이 적다는 점을 주로 이유로 들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27만원이었던 보조금 상한선이 최대 35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들도 현재 과열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예측이 좀 더 우세하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아직은 이번 영업정지와 관련해 시장과열의 분위기나 조짐은 보이지 않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현재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방통위 등의 눈치를 살피야 하는 시기라는 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경쟁은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보조금을 살포해 가입자를 빼앗아가면 상대도 이에 대응해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치킨 게임’ 양상을 보여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여지는 남아있다.

/연합뉴스

‘기어 VR’ 출시 임박

삼성, 가상현실 헤드셋 전파인증 완료

소문이 무성하던 삼성전자의 가상현실 헤드셋 ‘기어 VR’의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기어(Gear) VR’(모델명 SM-R320)의 국내 전파인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독일에서 열리는 ‘갤럭시 노트4’의 공개 행사에서 착용형(웨어러블) 기기로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됐다.

가상현실 헤드셋은 눈을 완전히 가리는 형태의 헤드셋으로, 이를 머리에 쓰고 고개를 돌리면 방향과 각도에 따라 실제 영상도 움직여 마치 가상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기다. 현재 대표적인 상용화 가상현실 헤드셋으로는, 최근 페이스북에 인수된 오culusVR의 오culus리프트<사진>가 꼽힌다.

/연합뉴스



내 손목 ‘니켈 알레르기’ 비상

몸에 착용 스마트 기기 원인...美 전체인구 20% 발진·가려움증

손목 등 몸에 착용하거나 신체에 닿는 각종 기기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안전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최근 뉴욕타임스가 지적했다.

손목에 착용하는 운동량 측정기구나 보석, 태블릿PC 등에 흔히 사용되는 금속인 니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도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신체에 닿았을 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니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내 전체 인구 가운데 10~20%가 니켈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건강관리용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인 ‘핏비트’가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자사 제품 100만대 이상을 리콜해야 했다. 당시 접수된 증상은 염증, 발진, 가려움증 등이다. 이들 모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적잖은 불편감을 일으킨다.

그러나 핏비트 측은 어떤 이유로 피부상에 문제점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

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의 집단소송에 위기에 몰려있다.

핏비트 외에도 지난 2011년 ‘월드디즈니 파크 앤 리조트’는 어린이용 시계 1200개를 리콜한 적이 있다. 역시 손목이 닿는 시계 뒷면에 니켈이 함유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손목시계형 기기 외에도 휴대전화, 노트북, 비디오게임기 등에서도 니켈 알레르기가 일어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미국 소아과학회 저널에는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 니켈 알레르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11세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은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기기는 ‘아이패드’라는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의 브루스 브로드 교수는 “미국에서 니켈 알레르기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면서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니켈과 관련해 아무런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학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금주 추천앱

기상청은 24절기 중 14번째인 처서를 맞은 23일부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다. 바야흐로 가을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 스마트앱으로 간편하게 독서를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리디북스/제작:RIDI Corporation /안드로이드, 아이폰

국내 전자책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가장 적극적이고 빠르게 진입해서 시장우위를 점하고 있는 리디북스는 형광펜 및 메모기능 등 각종 편의기능과 책 본문 읽어주기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크레마/제작:KEPH, Inc /안드로이드, 아이폰

국내에서 만든 전자책 단말기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크레마(crema)는 인터넷 대표 서점사인 YES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대교 리브로, 영풍 문고, 대교 북스 등 국내 최대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자책을 서비스하고 있다.



Wattpad 전자책 /제작:Wattpad.com/안드로이드, 아이폰

와트패드 전자책은 2000만권이 넘는 무료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는 전자책 도서관이다. 전 세계에서 배포되는 양질의 책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며 장르에 관계없이 다양한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서적을 접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DESIGN ZOOOS 제공:디자인주소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남한 노총각과 북한 꽃미녀의
예측불허 결혼일기

남남남 남남남 남남남

북녀 북녀 북녀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박수홍 ♥ 박수애 양준혁 ♥ 김은아

박수홍 ♥ 박수애

양준혁 ♥ 김은아